직지와 금속활자의 아름다움

- 조선전기 금속활자를 통하여 살펴본 선조의 미의식 -

The beauty of 『Jikji』 and Metal Type

- Aesthetics showed in metal type in the early Chosun Dynasty -

옥 영 정 (Ok, Young-Jung)*

◁ 목 차 ▷

1. 서 언
2. 금속활자 개발시기의 미의식
3. 금속활자의 개량과 발전적 미의식
4. 금속활자 보급, 확대시기의 미의식
5. 결 언
<參考文獻>

<초 록>

실물로 유일하게 남아있는 고려시대의 금속활자본 『白雲和尙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의 인쇄문화는 조선시대에도 계승되어 계미자, 경자자, 갑인자 등 금속활자의 개량 발전을 이루는데 바탕이 되었다. 비록 금속활자가 실용적인 활자의 필요성에 의해서 발명되었지만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인간의 미의식은 실용적인 측면에만 그치지 않고 인쇄된 출판물의 미적 측면을 고려하고 있음을 실물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 글은 임진왜란 이전 조선전기까지의 금속활자인쇄에 담겨진 한국인의 미의식을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금속활자의 주조와 인쇄에 의해서 표현된 발전적 측면을 알아보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해서 조선시대 금속활자를 개발시기, 개량시기, 보급·확대시기의 3 시기로 구분하고 각 금속활자마다 미의식을 표현하고 있는 사항에 역점을 두어 살펴보았다.

要語 : 직지, 금속활자, 계미자. 경자자, 갑인자, 미의식, 아름다움

---

*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고서실
접수일: 2004년 8월 16일 최초심사일: 2004년 9월 2일 심사완료일: 2004년 9월 18일

<ABSTRACT>

Metal type like Kemi-ja(癸未字), Kyoengja-ja(庚子字), Gabin-ja(甲寅字) in Chosun developed on the basis of the art of metal type in Koryo Dynasty. Although the invention of metal type resulted from practical use, found that ancestor also considered beauty through inspecting existing metal type prints like「Baekwoon Hwasang Chorok Jikji Shimche Yojol」(白雲和尙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

This paper is to survey Korean aesthetics showed in metal type casting and printing before 1592. so divided early Chosun into development times of metal type, improvement times, diffusion times and observed characteristics emphasized on beauty of individual metal type

Keywords : Jikji, metal type, Kemi-ja, Kyoengja-ja, Gabin-ja, aesthetics

KCI

1. 서 언[1]

우리나라의 금속활자인쇄술은 세계적인 자랑거리이자 전 인류의 기념할 만한 문화유산으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현존하는 세계최고의 금속활자 인쇄물은 비록 지방의 한 사찰에서 주조된 활자로 글자모양이 고르지 못하고 당시 미숙했던 인쇄기술이 드러나지만, 인쇄된 종이에 나타나는 모습보다 금속활자인쇄가 의미하는 문화사적 가치에 의해서 더욱 아름다워진다.

실물로 유일하게 남아있는 고려시대의 금속활자본 『白雲和尙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의 인쇄문화는 조선시대에도 계승되어 계미자, 경자자, 갑인자 등 금속활자의 개량 발전을 이루는데 바탕이 되었다. 비록 금속활자가 실용적인 활자의 필요성에 의해서 발명되었지만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인간의 미의식은 실용적인 측면에만 그치지 않고 인쇄된 출판물의 미적 측면[2]을 고려하고 있음을 실물[3]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서책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자면 활자본보다는 목판본이, 목판본 보다는 필사본이 아름다움을 느끼기 쉬울 것이다. 그만큼 금속활자는 아름다움을 표현하기가 어

---

1) 논문 발표 후 미의식에 관한 여러 교수님의 고견을 경청할 수 있었다. 청주대 김성수 교수, 원광대 김수천 교수는 서예의 예술성과 인쇄의 예술성에 관한 동질성이나 차이점 등을 규명하기 위한 진지한 해석이 필요함을 강조하였고, 지정토론을 맡아 주신 충남대 김순희 교수는 인쇄본의 미의식 기준이 완성도나 정형성에 의해서 결정되어 질 수 있는 지에 대하여 보다 깊이 있는 연구가 요구됨을 지적하였다. 대구대 김상호 교수께서는 미의식을 표현할 수 있는 몇 가지 요소 중에 변화 리듬감, 조화로움 등이 금속활자에 접목시킬 수 있는 미의식의 표현임을 강조하였고 이를 통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연구가 진행될 수 있음을 피력하였다. 앞으로의 연구에서 이를 적극 반영한다면 보다 객관적인 형식으로 연구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4분 교수님께 지면을 빌어 감사드린다.

2) 출판물에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은 북디자인 영역을 중심으로 많이 활성화 되었다. 최근에는 책의 장정이나 표지디자인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서 책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행사가 열리기도 하였는데 예를 들면 2003년 서울국제도서전 중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 전시회나 2004년 6월에 열린 "예술제본 전시회"가 이를 잘 반영하고 있다. 독일 북아트재단의 협조로 열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 전시회는 북 디자인상 수상작(1991-2002년)이 출품되었으며 155종에 이르는 출품작들은 대부분 화려하거나 개성적인 표지 디자인으로 아름다움을 표현한 것이었고 "예술제본 전시회"는 보존과 기념이라는 측면에서 저작물을 견고하고 아름답게 재구성한 작품을 선보인 것이었다.

3) 초기의 금속활자로 개발시기, 개량시기의 실물자료는 실제 크기에 가깝게 살펴볼 필요가 있으므로 본문에 삽입시키지 않고 본문 끝에 사진크기를 크게 하여 실었다.(그림 1-9)

렵고 긴 시간 동안의 숙성이 요구된다. 즉 금속활자에 나타나는 아름다움은 오랜 기간 동안 노력에 의해서 다듬어진 결과이며 새로운 금속활자의 주조는 곧 당시 미의식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이 글은 임진왜란 이전 조선전기까지의 금속활자인쇄에 담겨진 우리 조상의 미의식을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금속활자의 주조와 인쇄에 의해서 표현된 발전적 측면을 알아보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해서 금속활자를 개발과 개량, 보급확대의 3시기로 구분하고 각 금속활자마다 미의식을 표현하고 있는 사항에 역점을 두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금속활자 개발시기의 미의식

조선왕조의 기반이 튼튼하게 자리잡힌 것은 태종조에 이르러서였으며, 同王 3년(1403)에 비로소 鑄字所가 설치되어 능동적으로 숭유정책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전적의 인쇄를 가능하게 하였다.

權近의 계미자 주자발을 통하여 주조의 의의와 경비 조달 방법, 참여 인물, 자본, 제작 기간 등의 내용을 살필 수 있다.

이를 살펴보면, 태종이 癸未字를 만든 이유로 먼저 올바른 정치를 하려면 서적을 읽어 이치를 깨닫고 마음을 바로 잡아야 修身齊家治國平天下의 효력을 낼 수 있다 하였으며, 특히 우리나라는 중국으로부터 바다 건너에 있어 중국 서적이 들어오는 것이 드물고 또 판본은 갈라지기 쉽고 힘이 들어 천하의 서적을 모두 인쇄하기 어려우므로 동으로 글자를 만들어 서적을 얻을 때마다 인출하여 널리 퍼트린다면 그 이로움이 무궁할 것이라고 하였다.

주자에 드는 비용은 백성으로부터 받아내지 말고 임금과 친후 신료 가운데 유지들이 모아서 내도록 하였고, 참여인물로는 감독관으로 司平府事 李稷, 驪城君 閔無疾, 知申事 朴錫命, 右代言 李膺 등을 임명하고 실제 주조를 맡은 사람으로 軍資監 姜天霍, 長興庫使 金莊侃, 代言司 注書 柳荑, 壽寧府 丞 金爲民, 校書著

作郎 朴允英 등을 두었다. 또 활자의 자본은 경연에 있는 古注本 『詩傳』, 『書傳』, 『左氏傳』을 바탕으로 하였으며 제작 기간은 2월 19일부터 주조를 시작하여 수개월 동안 수십만자를 주성하였다.[4]

이 활자의 크기는 대자 1.4×1.7㎝, 소자 1.0×0.8㎝ 정도이다. 대자는 한 줄에 17자가 쓰이고 소자는 한 줄에 19-20자가 들어간다. 작은 글자의 폭은 큰 글자의 반 정도인 까닭에 조판시 반광에 큰 자는 8줄, 작은자는 16줄로 판이 짜여지는 특색이 있다. 필체는 남송본에서 볼 수 있는 글자체와 비슷한 구양순체의 바탕에 圓筆이 곁들여져 있다.

활자의 크기와 모양이 고르지 않고 또 자획의 굵기가 일정하지 않으며 획이 부분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것도 있어서 인쇄상태가 깨끗하지 못하지만,[5] 조선조 최초의 동활자로서 개발시기의 미의식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동활자의 주조 동기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지러짐이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즉 반듯한 모양의 글씨로 흐트러짐 없는 편집체제를 추구하였던 것이며 글씨체 또한 당대에 유행하던 것으로 금속활자에 이를 반영한 것이다.

癸未字는 조선조에 처음으로 만든 동활자로 주조술과 조판술이 성숙되지 않았다. 『白雲和尙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과 비교해 볼 때, 활자의 주조에 있어서 바탕글자를 새겨 부어내는 과정과 방법이 대폭 개량되기는 했지만 활자의 크기와 글자 모양이 아직 고르지 않고, 또 글자 획의 굵기가 일정하지 않으며, 그 획이 부분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 있어 인쇄상태가 깨끗하지 못하다. 그리고 조판술도 네 모퉁이를 고착시킨 틀의 위아래 변에 계선을 고착시킨 銅印版을 만들어 크기와 두께가 일정하지 않은 활자를 각 줄에 들어맞도록 무리하게 밀착 배열하였기 때문에, 옆줄이 맞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윗 글자와 아랫 글자의 획이 엇물려 있다.[6] 또 癸未字 소자본 『新刊類編歷擧三場文選對策』을 보면 각 줄의 활자수가 평균 19자

4) 權近, 『陽村先生文集』, 卷 22 跋語類, 鑄字跋.
5) 계미자 자형이 고르지 않은 점에 대하여 고 김두종박사는 합금의 배율이 알맞지 않은 것이 아니고 금속활자를 주조하던 초기인 만큼 주자가 완성된 후에 원글자대로 깍고 다듬는 기술이 정교하지 못한데 기인할 수도 있음을 피력한 바 있다.
6) 천혜봉, 癸未字와 그 印本, 『朝鮮初期 金屬活字 特別展』, 청주고인쇄박물관 2003. pp.140-145.

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18-20자로서 한두 자의 드나듦이 생기고 있다.

이와 같이 고려 말기의 『白雲和尙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보다 개량되기는 했으나 아직도 기술이 미숙한 초기의 공통된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그 기술은 아직 미숙하였으나 이 癸未字의 주조는 조선조 인쇄기술사에 획기적인 발전의 계기가 되었으며, 고려조에 지방에서 성행한 목판인쇄가 이 때에 이르러 중앙에서 주도하는 활자인쇄로의 전환기를 맞이하게 된 데에 큰 의의를 둘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세종조 이후 조선시대 전반에 걸친 학술활동과 인쇄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癸未字 인본을 살펴보면(그림 1, 2 참조), 태종 12(1412)년 7월에 요나라 사람인 申得財가 華紙를 만들어 바치자 그것을 鑄字所에 내려보내 인출한 『十七史纂古今通要』를[7] 비롯하여 『東萊先生校正北史詳節』, 『地理全書范氏洞林照膽』, 『纂圖互註周禮』가 현존하고 있고, 소자본으로 『新刊類編歷擧三場文選對策』과 『陶隱先生詩集』이 있다. 庚子字本 『少微家塾點校附音通鑑節要』와 『通鑑續編』은 서문만 癸未 대자로 찍혀져 있다. 그리고 번각본을 통해 알려진 것으로는 『禮記淺見錄』, 『音註全文春秋括例始末左傳句讀直解』, 『十一家註孫子』, 『大學衍義』 등이 있다.

3. 금속활자의 개량과 발전적 미의식

계미자의 주조로 시작된 조선시대 금속활자의 인쇄는 경자자와 이어지는 갑인자의 주조로 보다 아름다워지고 발전적으로 변화된다. 인쇄된 현존본을 살펴보면 기술의 발전을 바탕으로 전체의 조화를 위하여 조판, 여백 등을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두 활자는 미의식의 변화에서 각기 다른 의미를 지니므로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

7) 『太宗實錄』, 卷24, 12年 7月 壬辰條.

1) 경자자

세종은 즉위 초부터 주자인쇄에 관심을 갖고 주자소를 지원함과 동시에, 선왕 때 주조한 계미자보다 편리하고 아름다운 활자를 만들기 위해 직접 관여하여 개주사업을 적극 추진하였다. 그 결과 庚子字를 비롯한 여러 종류의 활자를 만들어 사용하면서 전례 없이 많은 활자본들을 찍어내게 되었다. 금속활자의 개량 단계인 경자자, 갑인자의 주조는 개량의 방식이나 인출된 판면의 전체적 구성을 놓고 볼 때 선조의 발전적 미의식을 엿볼 수 있다.(그림 3 참조)

경자자는 세종 2년(1420) 11월에 착수하여 7개월에 걸쳐 계미자의 단점을 보완하여 만든 조선조 두 번째 동활자이다. 계미자의 모양이 크고 가지런하지 못하고 거칠어서 인쇄하는 도중 활자의 동요가 자주 생겨 능률이 오르지 않으므로 개량하게 된 것이며, 세종의 지휘 아래 李蔵이 주관하고 南汲, 金益精, 鄭招 등이 감독하였다.

경자자의 주자사실은 성종때 갑진자를 주성하고 쓴 김종직의 신주자발과 계미자로 서문을 인쇄하고 경자자로 본문을 인쇄한 『通鑑續編』,갑인자본 『眞西山讀書記乙集上大學衍義』의 권말 卞季良의 "庚子字鑄字跋" 등을 통하여 살필 수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주자의 인쇄는 책을 찍어 전하기에 이로움이 무궁하나 처음으로 주조한 활자 즉 계미자의 자양이 아름답지 못하고 또한 인서하는 데도 불편함이 있으므로 경자년 11월에 왕이 친히 연구하여 공조참판 李蔵에게 새로이 활자를 주성할 것을 명하였고 그 업무는 知申事 金益精과 左代言 鄭招 등에게 관장케 하였다.

활자의 제작기간은 약 7개월이었으며 인쇄시에 편리함이 더하여 하루 20여지를 인쇄할 수 있었고 주성된 활자의 모양은 정교하고 세밀하였다.

이에 따라 인출하지 못할 책이 없게 되었으며 책이 없어서 배우지 못하는 사람 또한 없게 되었으니 문교와 세도가 날로 진흥할 것이며 漢·唐의 재리와 병혁을 나라의 우선 삼는 것을 본받아 실로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만세의 복이 될 것이라 하였다.

경자자의 개량은 활자의 네 면을 반듯하게 내고, 銅印版도 활자의 옆면과 잘 맞도록 하고 튼튼하게 개주한 것이다. 활자의 크기도 癸未字보다 훨씬 작으면서 보다 정교하였다. 이렇게 하여 1일 인출량이 20여 장이나 되어 癸未字의 몇 장에 비하여 훨씬 증가하게 되었다. 글자모양의 아름다움을 추구한 것 외에도 인출된 판면의 아름다움을 고려한 사실을 실록의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 鑄字所에 술 1백 20병을 내려 주었다. 전자에 책을 찍는데 글자를 銅板에 벌여 놓고 黃蠟을 끓여 부어, 단단히 굳은 뒤에 이를 찍었기 때문에, 蠟이 많이 들고, 하루에 찍어내는 것이 두어 장에 불과하였다. 이 때에 이르러 임금이 친히 지휘하여 공조 참판 이천과 전 소윤 남급으로 하여금 구리판을 다시 주조하여 글자의 모양과 꼭 맞게 만들었더니, 蠟을 녹여 붓지 아니하여도 글자가 이동하지 아니하고 더 楷正하여 하루에 수십 백 장을 찍어 낼 수 있다. 임금은 그들의 일하는 수고를 생각하여 자주 술과 고기를 내려 주고, 『資治通鑑綱目』을 찍어내라고 명령하고, 집현전으로 하여금 그 잘못된 곳을 교정하게 하였는데, 경자년(1420) 겨울부터 임인년(1422) 겨울에 이르러 일을 끝냈다.[8]

즉 활자에 맞추어 판틀을 새로 주조하였고 보다 해정하고 가지런한 모양을 나타내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현존하는 경자자의 인본이 계미자에 비하여 글자의 어긋남이 거의 없이 현대 출판에서 이야기하는 그리그(격자)가 보다 우수하게 된 것으로도 확인된다. 또한 판짜기에서도 소자로 찍힌 26行 18字本을 제외하고 대부분 11行 21字로서 광곽의 크기가 일정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활자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자면 경자자는 계미자보다 훨씬 작으면서 둥근 필의가 나타나는 글자체이며 개개의 글자보다는 여러 개의 글자가 배열되었을 때 가지런하고 정돈된 느낌을 지닌다. 金宗直의 '新鑄字(甲辰字)跋'에는 그 字本이 經筵에

8) 『世宗實錄』 卷11, 3년 3월 丙戌條.

소장된 古注本『詩傳』,『書傳』,『左氏傳』에서 택한 것으로 계미자와 같지만[9] 저본으로 삼은 서책의 판본은 원본계열일 가능성이 높다.

이 활자는 세종 32(1450)년에 庚午字를 주조할 때 녹여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慵齋叢話』에 "壬申年間에 문종이 경자자를 다시 녹여 안평대군에게 명하여 자체를 쓰게 하고 이름을 壬申字라 하였다"[10]는 기록이 있으며, 여기에서의 임신자는 경오자의 주조년대를 잘못 안 데서 붙여진 명칭임이 확실하므로 경오자를 주조할 때 녹여 쓴 것이 사실일 것이다. 다만 세종 16(1434)년에 甲寅字가 주성된 이후부터 同王 32(1450)년에 庚午字로 改鎔될 때까지의 사이에, 이 활자로 찍은 인출년도가 확실한 인본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활자의 사용은 갑인자의 등장과 더불어 중지된 것으로 보인다.

이 활자로 찍은 책으로는『莊子虈齋口義』,『老子虈齋口義』,『忠義直言』,『文選』,『西山先生眞文忠公文章正宗』,『資治通鑑綱目』,『戰國策』등 다수가 있다.

2) 甲寅字

세종 26년(1434) 7월에는 새로운 활자의 주조에 착수하여 두 달 걸려 20여만 개의 대·소자의 동활자를 만들게 되는데 이것이 갑인자이다.

갑인자의 주조 이후부터 나타나는 미의식은 글씨체의 독창성과 판면의 다양성이 서서히 나타난다는 것이다.

金鑌의 발문에 의하면 앞서 주성한 경자자의 자체가 가늘고 빽빽하여 열람이 어려워 대자가 필요한 데서 重鑄한 것이 그 동기라 하였다.[11] 李蔵의 감독 아래 金墩, 金鑌, 蔣英實, 李世衡, 鄭陟, 李純之, 李義長 등 당시의 물리학자와 천문관측기기의 제작을 담당했던 기술자들이 대거 참여하여 만들었기 때문에 활자의 모양이 정교 해정하고 명정하였다. 경자자와 비교하면 대자와 소자의 크기가 고르고 활자

9) 杜甫,『纂註分類杜詩』, 卷末, 金宗直 新鑄字(甲辰字)跋.
10) 成俔,『慵齋叢話』, 卷7, 活字條. "壬申年間, 文宗更鎔庚子字, 命安平書之, 名曰壬申字."
11)『高麗史節要』, 卷35, 卷末, 金鑌 鑄字 (甲寅字 跋.

의 네모가 반듯하고 판판하며 판짜기를 완전한 조립식으로 고안하여 대나무로 빈 틈을 메우는 단계로 개량 발전시켰다. 그리하여 하루의 인출량이 경자자의 배인40여 장으로 크게 늘었다.

갑인자는 선조 13년(1580)에 다시 주조될 때까지 약 140여 년 간에 걸쳐 사용되었으며, 오래 사용하는 사이에 활자가 닳고 이지러지고 부족한 글자가 생겨 연산군 5년(1499)에 『成宗實錄』을 찍어낼 때와 중종 10년(1515)에 보주가 이루어졌고, 그 밖에도 수시로 목활자를 만들어 보충하였다.

현전되고 있는 여러 甲寅字本을 보면 글자 획에 필력의 약동이 잘 나타나고 글자 사이가 여유 있게 떨어져 있으며 판면이 크고 늠름하다. 먹물도 油煙墨에 아교를 진하게 섞어 찍어 글자가 매우 검어서 한결 선명하고 깨끗하다.(그림 4, 5 참조)

실로 우리나라 금속활자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갑인자에 출발한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앞서 언급한 대로 글자획의 필력이나, 인쇄된 글자의 선명함, 글자배열의 가지런하고 정교함, 판면 구성의 시원스러움 등을 통하여 충분히 느낄 수 있으며 그 외에도 판짜기의 기술이 발전하면서 구성요소의 배열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서책의 분량과 성격에 따라 판의 크기도 다양하게 되고 다품종 소량생산 이라는 활자 인쇄의 특징을 그대로 반영하여 다양한 형태의 인본을 금속활자로 인쇄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뒤에 제작시기가 다른 활자를 같은 면에 배열하는 등 여러 가지 형태로 판면을 구성하는 기법을 선보이는 것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다양성을 추구하는 선조의 미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字體에 있어서도 經筵에 소장된 『孝順事實』, 『爲善陰騭』, 『論語』 등을 字本으로 하고 부족한 글자는 뒤에 세조가 된 晉陽大君이 써서 보충하였다고 하여, 비록 닮게 쓰기는 하였지만 명필로 하여금 글꼴을 쓰게 하여 우리나라 금속활자의 독창적인 글씨체를 쓰는데 시초가 되고 있다.

4. 금속활자 보급, 확대시기의 미의식

갑인자의 주조이후 주조기술과 조판기술이 뒷받침되면서 수많은 책을 인출해 낼 수 있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성과 독창성이라는 미의식이 자리잡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활자의 자체를 국내 명필가로 하여금 쓰게 하여 독창성을 확보하였고 이는 다양한 형태의 글꼴을 탄생시키게 된다. 즉 새로운 활자체의 개발이 갑인자이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최고 아름다운 서적을 인쇄한 최고 수준의 인쇄기술은 다양하고 독창적인 형태의 금속활자의 개발로 이어진 것이다.

갑인자 이후 주조된 금속활자의 면면을 살펴보면 이러한 특징이 그대로 드러난다.

세종 20년(1438)에 완성된 丙辰字는 晉陽大君에게 대자를 쓰게 해서 字本으로 삼고 鉛으로 제작하였다. 李季甸, 金汶 에게 명하여 『資治通鑑綱目』訓義 를 편찬하게 하였는데, 李思哲, 崔恒 등의 수교를 거쳐 同王 20년(1438)에 완성하여 인출하였다. 『資治通鑑綱目』訓義의 柳義孫이 지은 서문에 의하면 『資治通鑑綱目』訓義는 수교한지 3년에 걸쳐서 완성되었으나 그 舊註의 글자모양이 조금 치밀하므로 나이가 많으면 보기가 어렵다고 하여 晉陽大君에게 대자를 쓰게 하여 새로 주조한 후에, 그 대자로써 綱을 삼고 舊字인 甲寅字로써 目을 삼아 총 149권을 인출하여 널리 배포하였다고 한다.[12]

이 활자는 우리나라 고활자 중 가장 큰 활자로서 조선조 최초의 鉛活字이자 또한 최초의 우리 字體의 독자적인 금속활자이다.

또한 세종 29년(1447)에 『釋譜詳節』, 『月印千江之曲』을 지었는데 이 두 책을 찍기 위해 한자는 甲寅字를 사용하고 正音은 甲寅字 竝用 한글字를 銅으로 만들어 사용하였다. 이 때 처음 주성된 한글 활자인 甲寅字 竝用 한글字는 국역서 최초의 금속활자이다. 이 활자는 자음자와 모음자의 획이 모두 곧게 그은 선으로 결구된

12) 『資治通監綱目』, 柳義孫 序. 이 글은 柳義孫(1900년경), 『檜軒先生逸稿』, 木板本에도 그 全文이 있다.

고딕 인서체의 대자와 細筆 인서체의 소자로 되어 있다. 활자는 매우 정교하며 그 모양이 일정하다. 세종이 한글을 창제하고 최초로 주조한 금속활자인 점에서 더욱 더 그 가치가 크다.

문종 즉위년(1450)에는 安平大君의 글씨를 字本으로 대자와 소자의 동활자인 庚午字를 주조하였다. 당시 명필가로 널리 알려졌던 안평대군의 독특한 글씨체가 특히 대자에 박력 있게 잘 나타나있다.

이 활자는 安平大君이 형인 세조의 왕위 찬탈을 반대하다 賜死된 뒤 녹여 乙亥字의 주조에 사용했기 때문에, 그 사용기간이 6년에 불과하여 그 인본의 전래가 매우 드물다. 현재 전해지고 있는 인본으로서는 문종 즉위년(1451)에 찍은『歷代十八史略』, 문종년간에 찍어 단종 즉위년(1452)에 반사한『詳說古文眞寶大全 後集』,『歷代兵要』,『新增算學啓蒙』만이 전해지고 있다.

세조 때에 이르러서는 세종이 이루어 놓은 최고 수준의 금속활자인쇄 기술을 바탕으로 그것을 계승하여 크게 발전시키게 된다. 재위 14년 동안에 금속활자로 乙亥字를 비롯하여 丁丑字, 戊寅字, 乙酉字를 잇따라 주조하였다.

을해자는 세조 1년(1455)년에 晋體의 楷書로 쓴 姜希顔의 글씨를 字本으로 하여 경오자를 녹여서 대, 중, 소자로 만든 것이다. 경오자를 대신하기 위하여 이 활자를 새로 부어만들게 한 것은 수양대군이 실권을 잡은 때인 1455년 4월쯤으로, 강희안이 같은 달 9일에 書寫한 공으로 加資를 받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 수 있다.[13]

글씨체는 편평하고 대체로 폭이 넓은 둥근 필획이다. 우리나라 사람이 字本전체를 쓴 활자로서 가장 널리, 그리고 오랫동안 쓰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을해자는 갑인자 다음으로 오랜 기간 동안 사용되었으며 보통 중, 소자가 주조되는 다른 활자와 달리 대, 중, 소의 3종이 주조되었다. 초기의 인본을 살펴보면 초기 갑인자에 버금가는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그림 6 참조)

---

13) 端宗實錄 3年 4月 甲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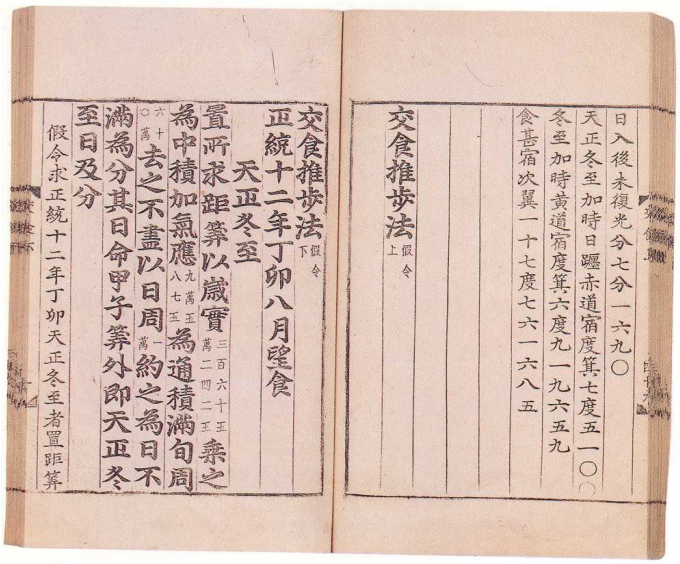
세조 3년(1457) 9월에서 同王 7년(1461) 초까지의 기간에 불경의 간행을 목적으로 乙亥字와 을해자병용한글자도 쓰였다. 이들 활자로 여러 종의 경전들을 인출하였는데, 이 때 인출한 한자본 경전들로는 『法華經』, 『金剛經』, 『圓覺經』, 『楞嚴經』, 『禪宗永嘉集』, 『天台四敎儀』 등이 있으며, 이들 한자본 중에서 『楞嚴經』과 『禪宗永嘉集』은 同王 7년(1461) 5월에 孝寧大君 이 檜巖寺 의 불사를 계기로 국역을 주청하여 완성시키고, 그 중 『楞嚴經』의 諺解를 그 해 9월에 인출하여 널리 반포하였다. 이 때 銅으로 만든 한글 활자가 을해자와 함께 처음으로 사용되었는데, 이 한글 활자가 을해자병용한글자이다.

이 한글활자의 자체는 초기의 강직한 인서체에서 부드러운 필서체로 옮아가는 과정의 특징을 보여준다.(그림 7 참조)

세조 4년(1458)에는 『交食推步法』 假令의 본문 대자와 『易學啓蒙要解』의 본문 대자, 細註의 특소자를 찍어내기 위하여 戊寅字라는 동활자를 주조하였다. 그 주조에 있어서는 먼저 『交食推步法』 假令의 본문 인출에 필요한 큰 활자를 만들었고, 이어 『易學啓蒙要解』의 본문과 細註 인출에 필요한 대자와 특소자를 더 만들었다.

이 활자의 자체는 松雪體의 필의가 짙게 나타나고 있음이 특징인데, 字本을 쓴 사람은 세조일 것으로 추측하나 확실치는 않다.

丁丑字는 彦琪, 宏德, 祖庭의 註釋에 우리나라의 得通이 補註한 『永嘉眞覺大師證道歌』와 信眉, 弘濬 등이 교정한 得通의 說義와 決議를 합친 『金剛經』(五家解)을 인쇄할 때 쓰인 활자이다. 본문 중의 正文에 쓰인 대자로 세조가 직접 쓴 것을 字本으로 하여 주조한 큰 동활자이며, 註釋 의 중자와 소자는 갑인자를 썼다.


交食推步法 假令
正統十二年丁卯八月望食
天正冬至
置所求距算以歲實三百六十五萬二四二五乘之
爲中積加氣應九萬五八七五爲通積滿旬周六十萬去之不盡以日周一萬約之爲日不滿爲分其日命甲子算外即天正冬至日及分
假令求正統十二年丁卯天正冬至者置距算
交食推步法 假令 上
日入後未復光分七分一六九〇
天正冬至加時日躔赤道宿度算七度五一〇〇
冬至加時黃道宿度算六度九一九六五九
食甚宿次翼一十七度七六一六八五

〈그림 10〉 무인자본『交食推步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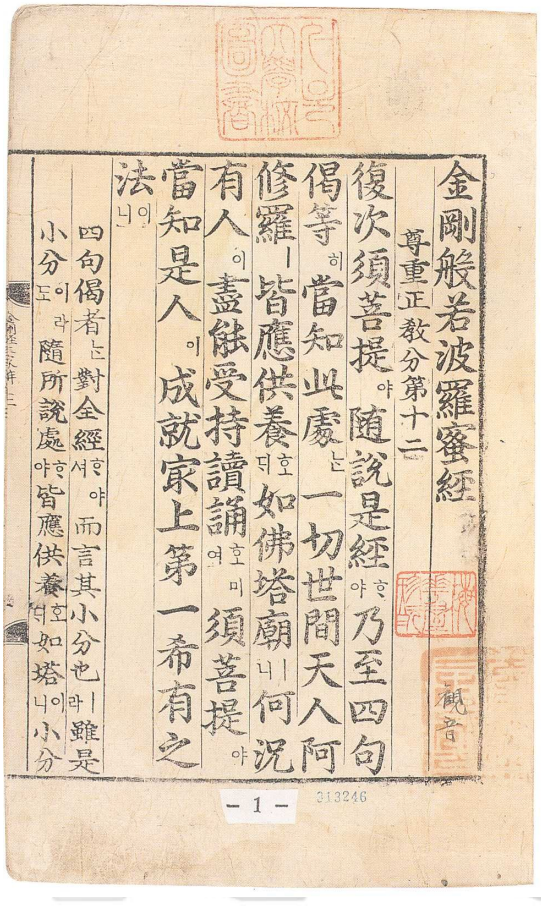
또한 冶父와 宗鏡의 주석에 得通의 설의를 합친『金剛經』(三家解)를 찍을 때에도 正文 대자『金剛經』(五家解)와 마찬가지로 丁丑字가 쓰였는데, 주석의 중자와 소자는 乙亥字, 그리고 한글은 을해자병용한글자로 찍었다.

앞서 살펴본 병진자의 경우처럼 제작시기가 다른 활자를 같은 면에 배열하는 등 여러 가지 형태로 판면을 구성하는 기법을 선보이면서 조화의 미를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조는 갑인자의 부족한 활자를 비롯하여 병진자, 정축자의 자본을 직접 썼고, 혹은 무인자의 자본까지 그가 썼을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활자의 주조에 적극 참여하였으며, 그 외에도 을해자와 을유자도 주조하게 하여 활자 인쇄문화를 크게 진작시켰다.

을유자는 세조 11년(1465)에 鄭蘭宗이 쓴 松雪體의 글자를 바탕으로 대, 중, 소자의 동활자를 주조한 것이며 구결을 찍기 위해 한글활자도 만들었다. 을유자의 주조사실은『慵齋叢話』의 "세조 11년(1465)『圓覺經』을 인출하고자 정난종에게 字本

을 쓰게 하여 주조한 활자가 을유자인데, 그 자체가 매우 고르지 않다"[14]라는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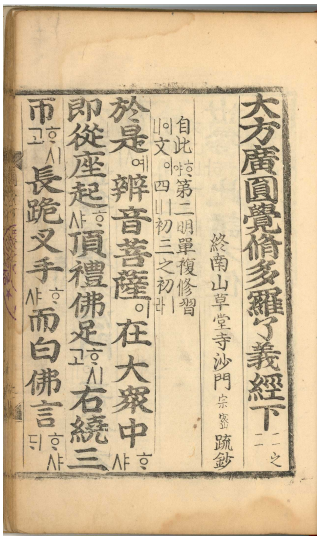

金剛般若波羅蜜經
尊重正教分第十二
復次須菩提야 隨說是經ᄒᆞ야 乃至四句
偈等히 當知此處ᄂᆞᆫ 一切世間天人阿
修羅ㅣ 皆應供養ᄒᆞᆫᄃᆡ 如佛塔廟ㅣ니 何況
有人이 盡能受持讀誦ᄒᆞ며 須菩提야
當知是人이 成就家上第一希有之
法이니
四句偈者ᄂᆞᆫ 對全經ᄒᆞ셔야 而言其小分也ㅣ라 雖是
小分이라도 隨所說處ᄒᆞ야 皆應供養ᄒᆞᆫᄃᆡ 如塔이니 小分
觀音
- 1 -
313246

〈그림 11〉 정축자 『金剛經』(五家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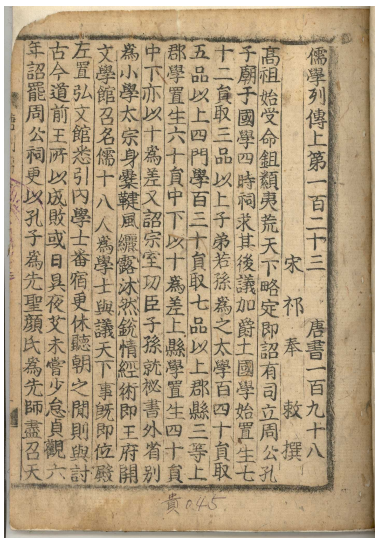
유의해서 살펴볼 점은 활자의 字體가 단정치 않아 별로 사용되지 못하고 성종 15년(1484)년에 甲辰字를 새로 주조할 때 녹여 사용하였다는 사실이며, 이는 활자

14) 成俔, 『慵齋叢話』, 卷7, 活字條. "世祖… 其後乙酉年, 欲印圓覺經, 命鄭蘭宗書之, 字體不整, 名曰乙酉字. …"

가 아름답지 못하면 녹여서 다른 활자를 주조할 정도로 미적 감각을 중시하였음을 알 수 있게 한다.


大方廣圓覺脩多羅了義經下 二之二
終南山草堂寺沙門宗密疏鈔
自此 ᄒᆞ야 第二明單複修習
이 文 이 四 ㅣㅣ 初三之初라
於是 예 辨音菩薩 이 在大衆中 ᄒᆞ샤
即從座起 ᄒᆞ샤 頂禮佛足 ᄒᆞ시고 右繞三
帀 ᄒᆞ시고 長跪叉手 ᄒᆞ샤 而白佛言 ᄒᆞ샤ᄃ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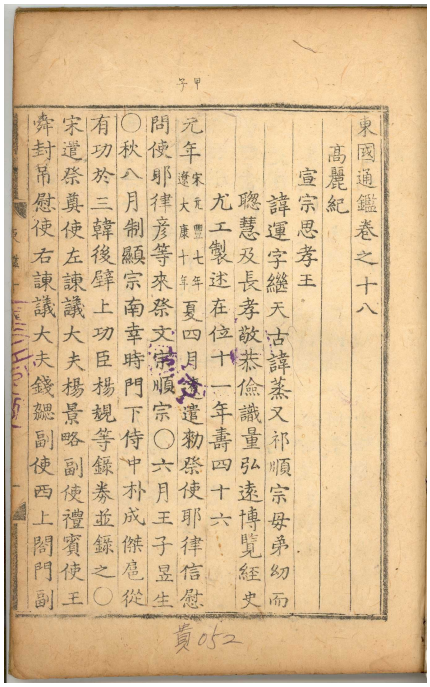
〈그림 12〉 을유자본『圓覺經』


儒學列傳上第一百二十三 唐書一百九十八
宋祁奉敕撰
高祖始受命鉏顓夷荒天下略定即詔有司立周公孔
子廟于國學四時祠求其後議加爵土國學始置生七
十二員取三品以上子弟若孫爲之太學百四十員取
五品以上四門學百三十員取七品以上郡縣三等上
郡學置生六十員中下以十爲差上縣學置生四十員
中下亦以十爲差又詔宗室功臣子孫就祕書外省別
爲小學太宗身櫜鞬風纚露沐然銳情經術即王府開
文學館召名儒十八人爲學士與議天下事既即位殿
左置弘文館悉引內學士番宿更休聽朝之閒則與討
古今道前王所以成敗或日具夜艾未嘗少怠貞觀六
年詔罷周公祠更以孔子爲先聖顏氏爲先師盡召天
貴 0.45

〈그림 13〉 을유자본『唐書』

성종대에는 甲辰字, 癸丑字의 주조가 있었다. 갑진자는 성종 15년(1484) 8월에 大內에 소장된 明本『歐陽文忠公集』과『列女傳』의 글자를 바탕으로 하고, 부족한 글자는 당시 細字의 명필인 朴耕에게 쓰게 하여 銅으로 대자와 소자 30여 만자를 주조한 것이며, 을유자를 녹여 사용하였다.

이 활자를 새로 주조한 동기는 당시 주로 사용하였던 갑인자와 을해자의 자체가 커서 종이가 많이 들고 권질이 무거워 불편했던 점, 또 오랜 사용으로 보주가 이루어져 인쇄가 깨끗하지 못했던 점, 그리고 바로 앞서 주조한 을유자는 본시 불경을 찍기 위해 만든 활자이기 때문에 유신들이 싫어했으며, 또한 글자 모양이 단정치 않아 인쇄하기를 모두 꺼려했던 점을 들고 있다. 그리하여 자체가 아주 작으면서도


東國通鑑卷之十八
高麗紀
宣宗思孝王
諱運字繼天古諱蒸又祁順宗母弟幼而
聰慧及長孝敬恭儉識量弘遠博覽經史
尤工製述在位十一年壽四十六
元年宋元豐七年遼大康十年夏四月遣勅祭使耶律信懿
問使耶律彦等來祭文稱順宗○六月王子昱生
○秋八月制顯宗南幸時門下侍中朴成傑扈從
有功於三韓後辟上功臣楊規等錄券並錄之○
宋遣祭奠使左諫議大夫楊景略副使禮賓使王
舜封弔慰使右諫議大夫錢勰副使西上閤門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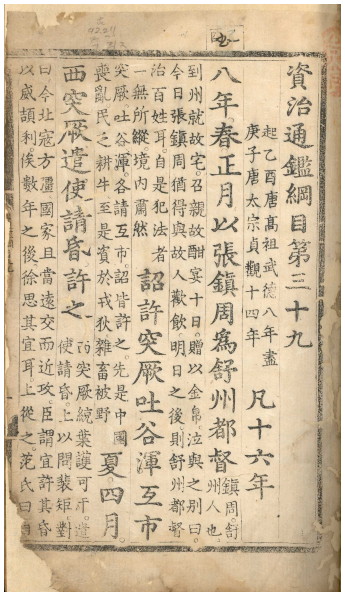
〈그림 14〉 갑진자『東國通鑑』

아름다운 글자를 明本에서 가려내어 주조한 것이 바로 이 활자였다. 자체는 晋體 小楷字體로서 조선 초기의 활자 중에서 그 자체가 가장 작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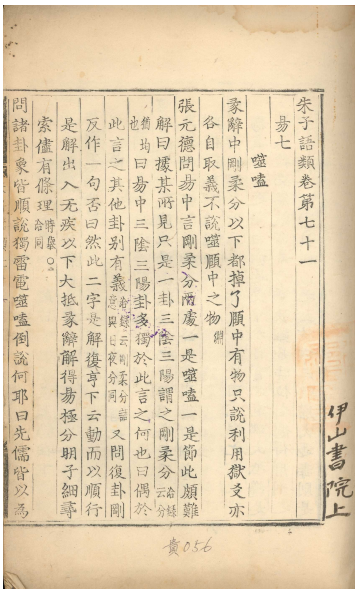
이 활자의 인본으로는 『王荊文公詩』, 『纂註分類杜詩』, 『東國通鑑』 등이 있는데, 임진란 전까지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甲寅字와 乙亥字의 다음으로 오래 사용되었다.

성종 24년(1493)년에는 명나라의 新版本인 『資治通鑑綱目』을 字本으로 하여 銅으로 대,중,소의 세 가지 크기의 활자를 주조하였는데 곧 癸丑字이다. 계축자의 자체는 楷書體로 갑인자보다 큰 것이 특징이다. 이 활자는 中宗朝까지 사용되고 곧 폐기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현재 전래되는 인본으로는 『朝鮮賦』, 연산군 8년(1502) 인출의 『資治通鑑綱目』과 계축자 소자 인출의 『宋朝奏議』, 중종 23년(1528)에 李荇 등이 新增에 착수하여 同王 25년(1530)에 찍어낸 『新增東國輿地勝覽』이 겨우 전래되고 있다. 활자로서 짜임새가 없고는 편이다.

중종 11년(1516)에는 唐本 『資治通鑑』을 字本으로 하여 銅으로 丙子字를 주조하였다. 중종조에 들어와서 주로 사용해 온 갑인자는 물론 갑진자에도 활자 전반에 마멸상태가 나타나고 목활자의 혼용도 심해져서 인쇄가 깨끗하지 못하였기에 활자를 주조할 것을 건의하였고, 그에 따라 이듬해 정월 22일에 鑄字都監을 설치하였다. 이 활자를 부어내는 데에는 주자도감의 郎官을 두 편으로 나누어 경쟁시켜서 이긴 편은 관직을 올려주기도 한 일이 있었다.[15]


資治通鑑綱目第三十九
起乙酉唐高祖武德八年盡庚子唐太宗貞觀十四年 凡十六年
八年春正月以張鎮周爲舒州都督鎮周舒州人也到州就故宅召親故酣宴十日贈以金帛泣與之別曰今日張鎮周猶得與故人歡飲明日之後則舒州都督治百姓耳自是犯法者一無所縱境內肅然
詔許突厥吐谷渾互市詔皆許之先是中國與突厥吐谷渾各請互市於我我以牛馬貿於彼雜畜被野突厥統葉護可汗遣使請昏許之使請昏上以問裴矩對曰今北寇方盛國家且當遠交而近攻臣謂宜許其昏以威頡利俟數年之後徐思其宜耳上從之尤氏曰

〈그림 15〉 계축자본
『資治通鑑綱目』


朱子語類卷第七十一
易七
噬嗑
彖辭中剛柔分以下都揔了順中有物只說利用獄爻亦各自取義不說噬嗑順中之物
張元德問易中言剛柔分兩處一是噬嗑一是節此頗難解曰據某所見只是一卦三陰三陽謂之剛柔分(諸分緣)皆均曰易中三陰三陽卦多獨於此言之何也曰偶於此言之其他卦別有義(看彖辭云剛柔分當與此異)又問復卦剛反作一句否曰然此二字是解復亨下云動而以順行是解出入无疾以下大抵彖辭解得易極分明子細尋索儘有條理(時舉同)
問諸卦象皆順說獨雷電噬嗑倒說何耶曰先儒皆以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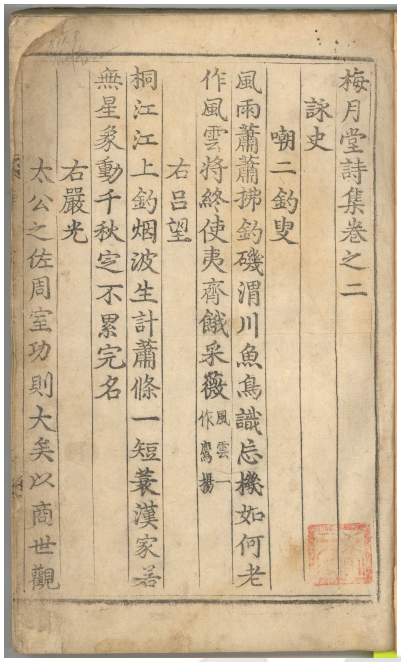
〈그림 16〉 병자자본『朱子語類』

병자자는 갑인자, 을해자, 갑진자 다음으로 오래 쓰였으며, 임진왜란 직전까지 70여년간 사용되었다. 이 활자는 中宗 14年(1519) 己卯에 만들어진 활자와 구분짓기도 하며 현재 전래되고 있는 인본으로는『歷代兵要』,『朱子語類』,『唐柳先生集』『文苑英華』,『瀛奎律隨』등이 있다.

한편 갑인자는 초주 이후 가장 오랫동안 사용하여 활자가 없어지고 닳고 이지러져 자주 보주하였는데, 1세기 이상이 지난 무렵에는 그 보주와 마멸의 정도가 심하여 인쇄가 깨끗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선조 13년(1580) 정월에 다시 주조하였으니 곧 庚辰字이다. 당시 大內에 소장한 갑인자본『大學衍義』를 字本으로 9개월 걸려 주조하였으며, 그 일을 朴淳 등이 감독하고 黃允吉 등이 관장하였다. 초주 갑인자에 비하여 글자 획이 좀 굵고 둔탁하여 주조의 정교도가 떨어져 보이지만 초주갑

15)『中宗實錄』, 卷23, 11年 正月 甲辰條 同 卷24, 11年4月 甲子條

인자의 필획이나 미려함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


梅月堂詩集卷之二
詠史
嘲二釣叟
風雨蕭蕭拂釣磯渭川魚鳥識忘機如何老
作風雲將終使夷齊餓采薇 風雲一作鷹揚
右呂望
桐江江上釣烟波生計蕭條一短蓑漢家若
無星象動千秋定不累完名
右嚴光
太公之佐周室功則大矣以商世觀

〈그림 17〉 경진자본『梅月堂詩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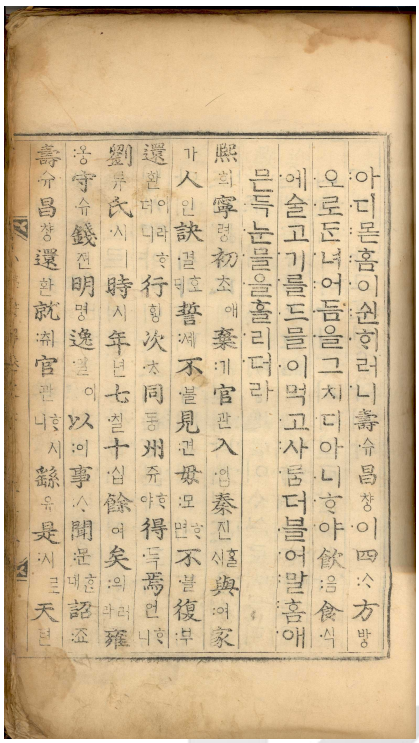
인본으로는 『箋註靖節先生集』, 『梅月堂詩集』, 『會纂宋岳鄂 武穆王精忠錄』, 『詩傳』 등이 있다.

經書字는 임진왜란 직전인 선조 21년(1588)년에서 同王 23년(1590) 사이에 국역본『小學諺解』를 비롯한 『大學諺解』, 『中庸諺解』, 『論語諺解』, 『孟子諺解』의 四書諺解와 『孝經諺解』 등의 經書를 인출하기 위하여 주조한 중자와 소자의 동활자이다.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언제, 어디서, 누구의 글씨체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는지 확인하기 어렵지만 초인본인 『小學諺解』가 정서된 선조 19년(1586) 여름부터 선조가 인쇄를 하명하고 아울러 李山海에게 발문을 쓰게 한 同王 20(1587)년 4월 이후 수개월 사이로 주조년대를 추정하고 있다.[16]

경서자의 자체는 을해자와 많이 닮았지만 글자 획이 가늘고 정교해서 보다 세련된 느낌을 갖는다. 활자의 배열이나 판의 짜임도 단아하다.

한편 조선시대 천문, 기상의 업무를 맡아보던 觀象監에서도 활자를 보유하고 각종의 曆書를 간행하였데 임진왜란 이전부터 금속활자로 책력을 간행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현재 전해지고 있는 冊曆 중에 임진왜란 당시 주자로 인출한 『大統曆』이 남아 있다.

16) 千惠鳳, 『韓國 書誌學』, 개정판, (서울: 민음사, 1997) pp.338-339.



〈그림 18〉 경서자본『小學諺解』

활자의 재료는 철로 여겨지며, 크기는 대, 중, 소 세 가지가 있는데 현재까지 다른 서책의 인출에 사용된 예를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책력의 간행을 주목적으로 주조된 활자일 것으로 여겨진다.

이렇듯 갑인자이후 조선전기의 금속활자인쇄는 본격적으로 독창성을 추구한 시기이며, 후대로 점점 발전해갈수록 특정주제의 서책인출을 목적으로 활자의 주조가 이루어지는 경향도 보인다.

5. 결 언

고려시대의 금속활자본『白雲和尙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의 인쇄문화는 조선시대에도 계승되어 계미자, 경자자, 갑인자 등 금속활자의 개량 발전을 이루는데 바탕이 되었다.

계미자의 주조로 시작된 조선시대 금속활자의 인쇄는 경자자와 이어지는 갑인자의 주조로 보다 아름다워지고 발전적으로 변화되었다. 인쇄된 현존본을 살펴보면 기술의 발전을 바탕으로 전체의 조화를 위하여 조판, 여백 등을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갑인자 이후 보급, 확대시기의 금속활자인쇄는 독창성과 다양성

을 추구하고 있고 이는 곧 금속활자에 나타나는 미의식으로 파악된다.

서책의 아름다움은 글자자체의 아름다움이외에도 글자를 바탕으로 한 편집틀의 조화나 여백 등 디자인적 요소로 그 수준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 금속활자인쇄의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이러한 서책의 아름다움을 위하여 애쓴 흔적을 확인할 수 있고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점점 다양해지고 독창성을 지니는 것으로 발전함을 알 수 있다.

금속활자 초기의 개발 시기에는 아직도 미숙한 초기의 공통된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그 기술이 아직 미숙하였지만 조선시대 인쇄기술사에 획기적인 발전의 계기가 되었으며 조선시대 전반에 걸친 학술활동과 인쇄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금속활자의 개량시기에는 경자자와 이어지는 갑인자의 주조로 보다 아름다워지고 발전적으로 변화된다. 미의식의 반영은 이러한 개량시기부터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금속활자의 보급, 확대시기에는 개량시기에 축적된 최고의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화되었고 독창적으로 바뀌어 진다. 이는 여러 종류의 서책을 인쇄하면서 미적 감각을 발전시킨 결과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書藝史에서 위치를 차지하는 명필로 하여금 글씨를 쓰게 함으로써 독창성을 확보한 점은 우리나라 책에서 같은 문화권의 다른 나라의 서책과 구별되는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결국 금속활자를 통하여 살펴볼 수 있는 선조의 미의식은 독창성과 다양성을 기본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사용된 재료와 주조배경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쇄출판이라는 기본적인 목적아래 보다 과학적으로 활자를 개량하고 다양한 재료와 크기, 서체로 필요에 따라 알맞게 출판하는 체제를 갖추어서 꾸준히 노력해온 결과이기도 하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미지와 영상의 시대를 살아가지만 활자의 영향을 벗어날 수는 없다. 아무리 새로운 매체가 발달한다 하여도 의사소통에 기본인 언어와 문자는 인간에게 감각기관과 같은 기본사항이고 활자는 문자를 표현해내는 도구로서 글꼴의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컴퓨터의 발달로 활자의 실물이 사라진지 오래지만 글꼴은 그대로 남아서 더욱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인류의 생활에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새로운 글꼴의 개발은 조선시대 새로운 활자의 주조와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금속활자의 아름다움을 빗어낸 선조의 미의식은 현시점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새롭고 창의적인 출판문화를 일으키는데 바탕이 될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參 考 文 獻>

金斗鍾.「書體上으로 보는 近世朝鮮活字體의 變遷」,『書誌』第1卷 第1號(1960. 2), p.19-29.

_____.『韓國古印刷技術史』. 서울: 探求堂, 1974.

金相渙.「觀象監活字考」,『圖書館學』, 第14輯(1987) pp.131-148.

김수천.「5·6세기 한·중 서예사 자료비교를 통한 한국서예의 정체성 모색」,『書誌學硏究』, 第23輯 (2002.6) pp.43-64.

金元龍.「李氏朝鮮鑄字印刷小史: 鑄字所를 中心으로」,『鄕土서울』第3號(1958. 12) pp.123-170.

金允植.「世宗의 學問活動과 書籍文化」,『國會圖書館報』第23卷 第4號(1986. 7,8) pp.5-14.

白麟.「癸酉, 庚辰, 戊午字에 對하여」,『도협월보』8권 1호(1967. 2) pp.25-32.

南權熙,「甲寅字와 그 印本」,『朝鮮初期 金屬活字 特別展』, 淸州: 淸州古印刷博物館, 2003, pp.160-174.

朴文烈,「금속활자인쇄술의 발명과 발전」,『朝鮮初期 金屬活字 特別展』, 淸州古印刷博物館(2003), pp.121-139.

白麟.「韓國古活字本에 對한 硏究」,『서울大學校圖書館報』3號(1965. 12) pp.3-51.

孫寶基.「韓國印刷技術史」,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編.『韓國文化史大系 Ⅲ 科學技術史』. 서울: 同硏究所出版部, 1968, pp.965-1061.

_____.『새판 한국의 고활자』. 서울: 寶晋齋, 1982.

_____.『세종 시대의 인쇄출판』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86.

신승운.「成宗朝의 文士養成과 文集編刊」,『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28집(1995. 6) pp.301-390.

安春根.「甲寅字鑄字事實補疑」,『書誌學硏究』第2輯(1987) pp.109-121.

_____.『韓國出版文化史大要』. 서울: 청림출판, 1987.

尹炳泰.「『交食推步法<假令>』大字考」,『도협월보』 15권 7호(1974. 7) pp.2-6, 12.

_____.「世祖朝 大型活字考: 奎章閣本을 中心으로」,『奎章閣』 8(1984. 12) pp.77-101.

_____.「朝鮮時代 活字 使用考」,『奎章閣』, 2(1978. 12) pp.57-77.

_____.「韓國의 活字印刷 文化」,『古印刷文化』第6輯(2000) pp.7-78.

_____.『韓國書誌年表』. 서울: 韓國圖書館協會, 1972.

윤상기.「韓國 古活字名에 대한 硏究: 壬辰倭亂 以前의 金屬活字를 中心으로」,『東義論集』, 人文社會科學篇, 第24集(1996. 9) pp.201-255.

_____.「庚子字와 그 印本들」,『朝鮮初期 金屬活字 特別展』, 淸州古印刷博物館(2003) pp.146-159.

李秉岐.「韓國書誌의 硏究(上)」,『東方學志』第3輯(1957) pp.17-38.

李完雨,「朝鮮 前期의 書論 硏究」,『美術史學硏究』240호 (2003.12) pp.283-319

鄭亨愚.『朝鮮時代 書誌史硏究』, 서울: 韓國硏究院, 1983.

趙炳舜.「癸未字 字本에 대하여」,『季刊書誌學報』 제7호(1992) pp.3-33.

_____.「癸未字 字數와 小字 起源에 대한 考察」,『季刊書誌學報』 제11호(1993. 12) pp.37-1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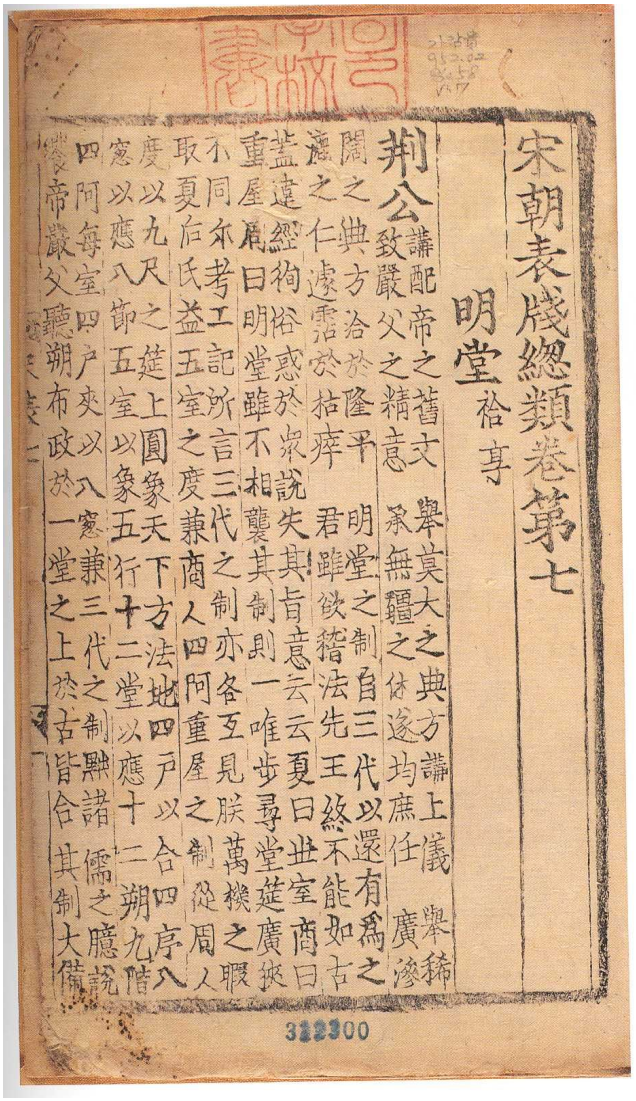
曺炯鎭.「金屬活字印刷의 組板技術」,『季刊書誌學報』 제13호(1994. 9) pp.57-89.

千惠鳳.「甲寅字本 鑑識의 諸問題」,『蒼史 李春熙敎授 定年紀念論叢』. 서울: 景仁文化社, 1993, pp.19-47.

_____.「庚午字攷」, (成均館大學校)『論文集: 人文·社會系』 第13輯(1968. 12), pp.141-160.

_____.「癸未字와 그 刊本」,『書誌學』第6號(1974. 12), p.1-28.
_____.「世祖朝 新鑄의 '戊寅字'와 그 刊本」,『한국비블리아』第2輯(1974. 10), pp.102-131.
_____.「李蔵과 世宗朝의 鑄字印刷」,『東方學志』 46·47·48合輯(1985), pp.345-368.
_____.「丁丑字攷」,『歷史學報』제35, 36합집(1967. 12), pp.267-291.
_____.『韓國書誌學』, 개정판. 서울: 민음사, 1997.
_____.『韓國典籍印刷史』. 서울: 汎友社, 1990.

KC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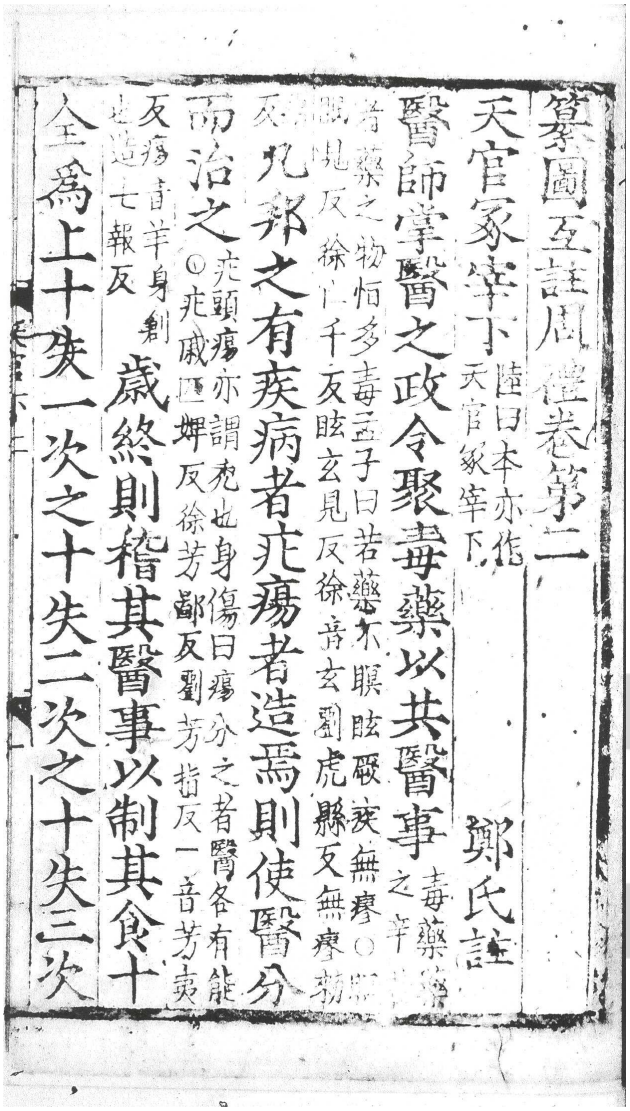


宋朝表牋總類卷第七

明堂 祫享

荆公講配帝之舊文 舉莫大之典方講上儀 舉稀
致嚴父之精意 承無疆之休遂均庶任 廣滲
闊之典方洽於隆平 明堂之制自三代以還有爲之
廬之仁遽霑於枯瘁 君雖欲稽法先王終不能如古
蓋違經徇俗惑於衆說失其旨意云云夏曰世室商曰
重屋周曰明堂雖不相襲其制則一唯步尋堂筵廣狹
不同尒考工記所言三代之制亦各互見朕萬機之暇
取夏后氏益五室之度兼商人四阿重屋之制從周人
度以九尺之筵上圓象天下方法地四戶以合四序八
窓以應八節五室以象五行十二堂以應十二朔九階
四阿每室四戶夾以八窓兼三代之制黜諸儒之臆說
饗帝嚴父聽朔布政於一堂之上於古皆合其制大備

〈그림 1〉 계미자본 『宋朝表牋摠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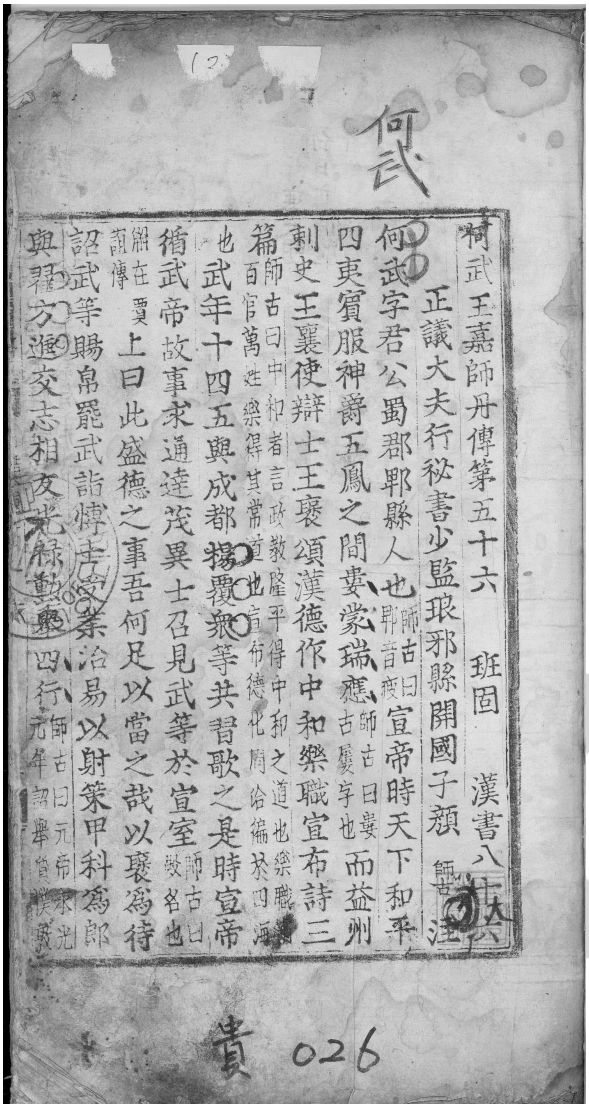


纂圖互註周禮卷第二

天官冢宰下 陸曰本亦作天官冢宰下 鄭氏註

醫師掌醫之政令聚毒藥以共醫事 毒藥藥之辛者藥之物恒多毒孟子曰若藥不瞑眩厥疾無瘳○瞑眠見反徐亡千反眩玄見反徐音玄劉虎縣反無瘳勑反 凡邦之有疾病者疕瘍者造焉則使醫分而治之 疕頭瘍亦謂疕也身傷曰瘍分之者醫各有能○疕戚匹婢反徐芳鄙反劉芳指反一音芳夷反瘍音羊身創也造七報反 歲終則稽其醫事以制其食十全爲上十失一次之十失二次之十失三次

〈그림 2〉 계미자본 『纂圖互註周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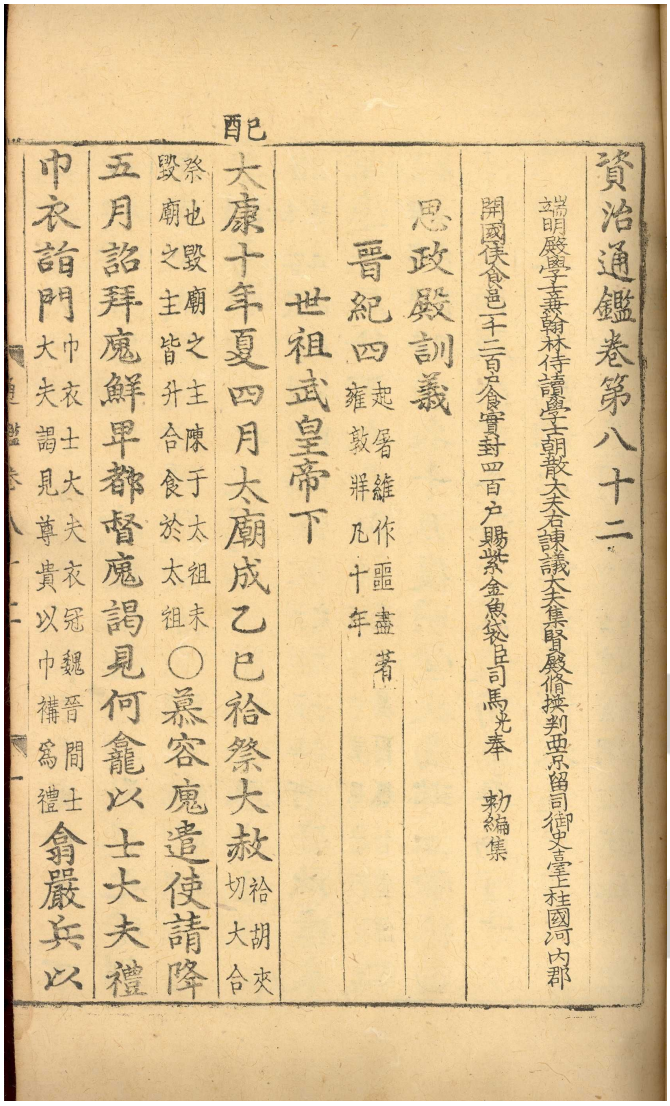


何武王嘉師丹傳第五十六　班固　漢書八十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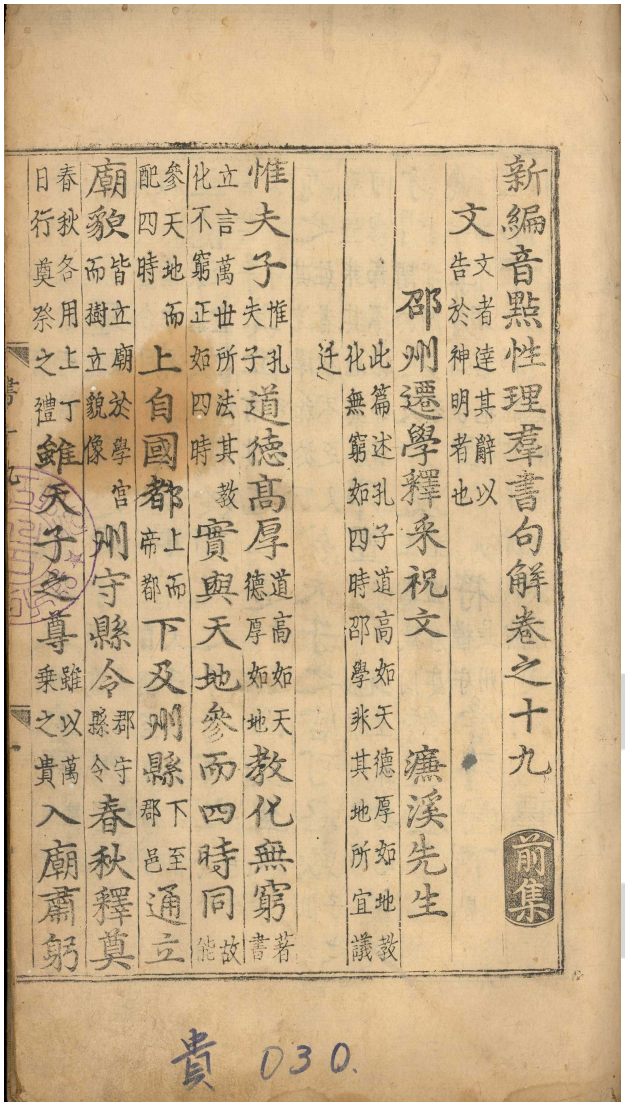
正議大夫行秘書少監琅邪縣開國子顏　師古注

何武字君公蜀郡郫縣人也師古曰郫音疲宣帝時天下和平四夷賓服神爵五鳳之間婁蒙瑞應師古曰婁古屢字也而益州刺史王襄使辯士王褒頌漢德作中和樂職宣布詩三篇師古曰中和者言政教隆平得中和之道也樂職謂百官萬姓樂得其常道也宣布德化周洽徧於四海也武年十四五與成都楊覆衆等共習歌之是時宣帝循武帝故事求通達茂異士召見武等於宣室師古曰殿名也俗在賈誼傳上曰此盛德之事吾何足以當之哉以褒爲待詔武等賜帛罷武詣博士受業治易以射策甲科爲郎與翟方進交志相友光祿勳舉四行師古曰元帝永光元年詔舉賢撲敦

〈그림 3〉 경자자본 『漢書』


資治通鑑卷第八十二
端明殿學士兼翰林侍讀學士朝散大夫右諫議大夫集賢殿脩撰判西京留司御史臺上柱國河內郡
開國侯食邑二千二百戶食實封四百戶賜紫金魚袋臣司馬光奉 勅編集
思政殿訓義
晉紀四 起屠維作噩盡著雍敦牂凡十年
世祖武皇帝下
太康十年夏四月太廟成乙巳祫祭大赦 祫胡夾切大合
祭也毀廟之主陳于太祖未毀廟之主皆升合食於太祖○慕容廆遣使請降
五月詔拜廆鮮卑都督廆謁見何龕以士大夫禮
巾衣詣門 巾衣士大夫衣冠魏晉間士大夫謁見尊貴以巾褠爲禮 翁嚴兵以

〈그림 4〉 갑인자본 『資治通鑑』


新編音點性理羣書句解卷之十九 前集

文 文者達其辭以告於神明者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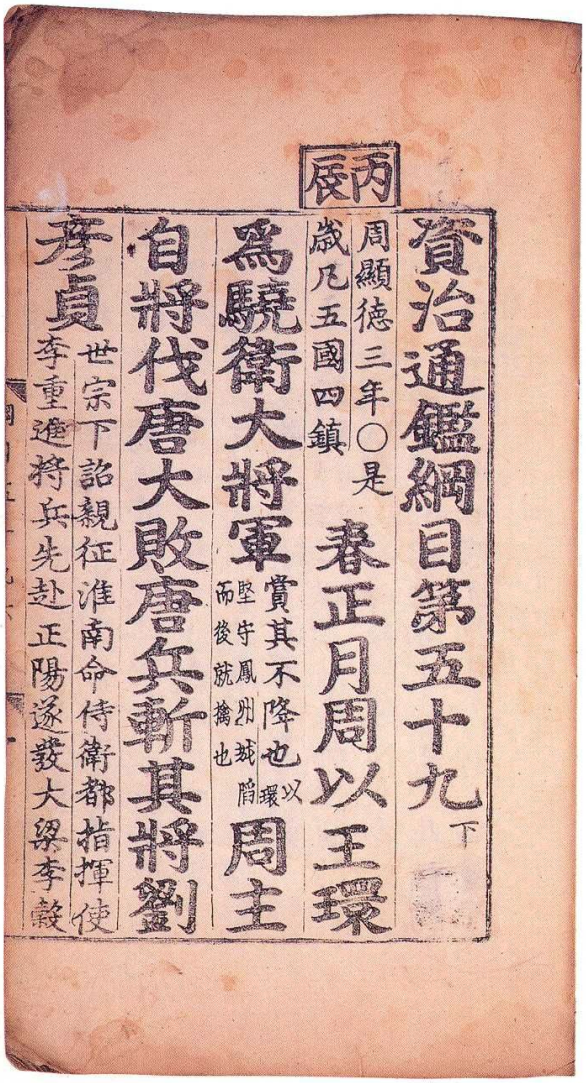
邵州遷學釋采祝文 濂溪先生

此篇述孔子道高如天德厚如地教化無窮如四時邵學非其地所宜議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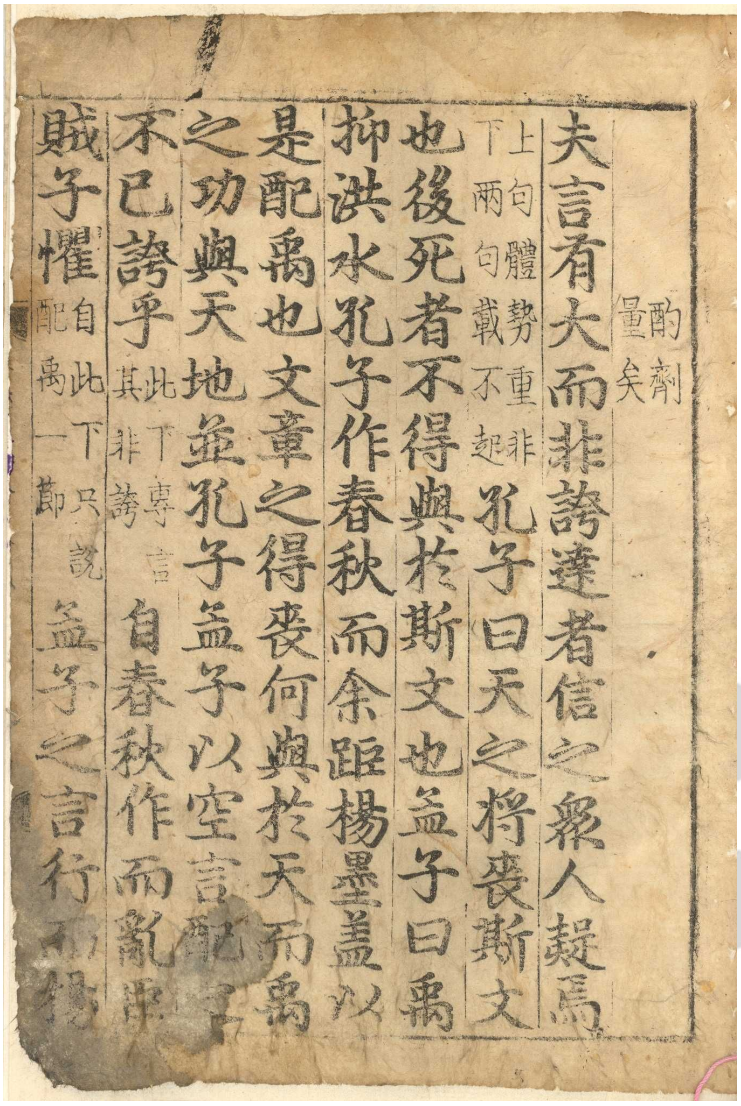
惟夫子 惟孔夫子 道德高厚 道高如天德厚如地 教化無窮 著書立言萬世所法其教化不窮正如四時 實與天地參而四時同 故能參天地而配四時 上自國都 上而帝都下及州縣 下至郡邑通立廟貌 皆立廟於學宮而塑立貌像 州守縣令 郡守縣令 春秋釋奠 春秋各用上丁日行奠祭之禮 雖天子之尊 雖以萬乘之貴入廟肅躬

貴 0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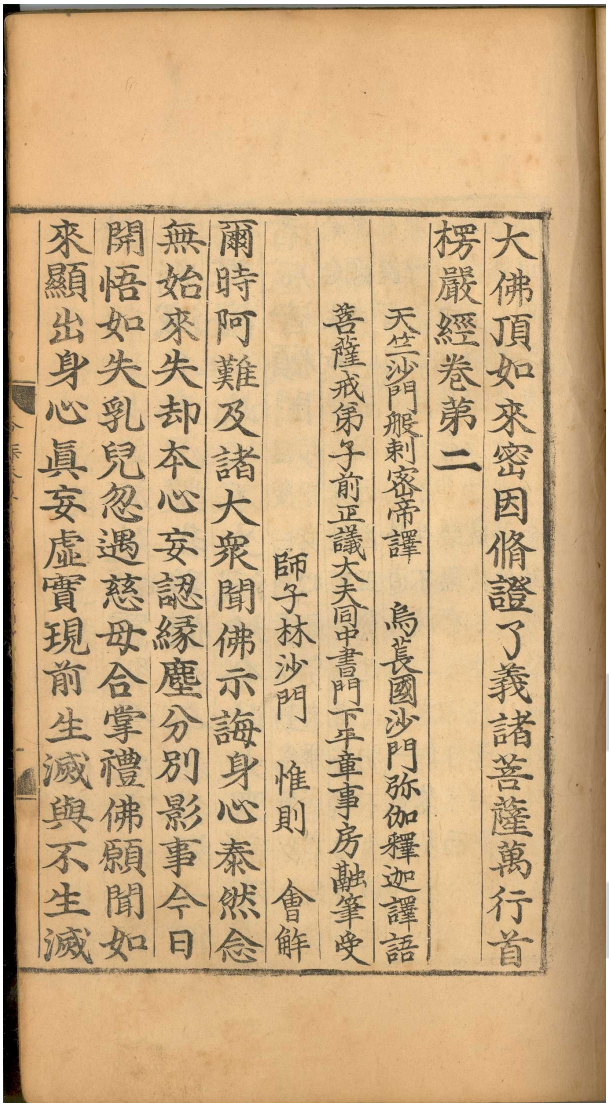
〈그림 5〉 갑인자본 『新刊音點性理群書句解』


資治通鑑綱目第五十九 下
丙辰
周顯德三年○是歲凡五國四鎮 春正月周以王環爲驍衛大將軍賞其不降也以環堅守鳳州城陷而後就擒也周主自將伐唐大敗唐兵斬其將劉彦貞世宗下詔親征淮南命侍衛都指揮使李重進將兵先赴正陽遂毀大梁李穀

〈그림 6〉 병진자본 『資治通鑑綱目』


夫言有大而非誇達者信之衆人疑焉
上句體勢重非下兩句載不起孔子曰天之將喪斯文
酌劑量矣
也後死者不得與於斯文也益子曰禹
抑洪水孔子作春秋而余距楊墨蓋以
是配禹也文章之得喪何與於天而禹
之功與天地並孔子益予以空言配之
不已誇乎此下專言其非誇自春秋作而亂臣
賊子懼自此下只說配禹一節益子之言行可得

〈그림 7〉 경오자본 『詳說古文眞寶大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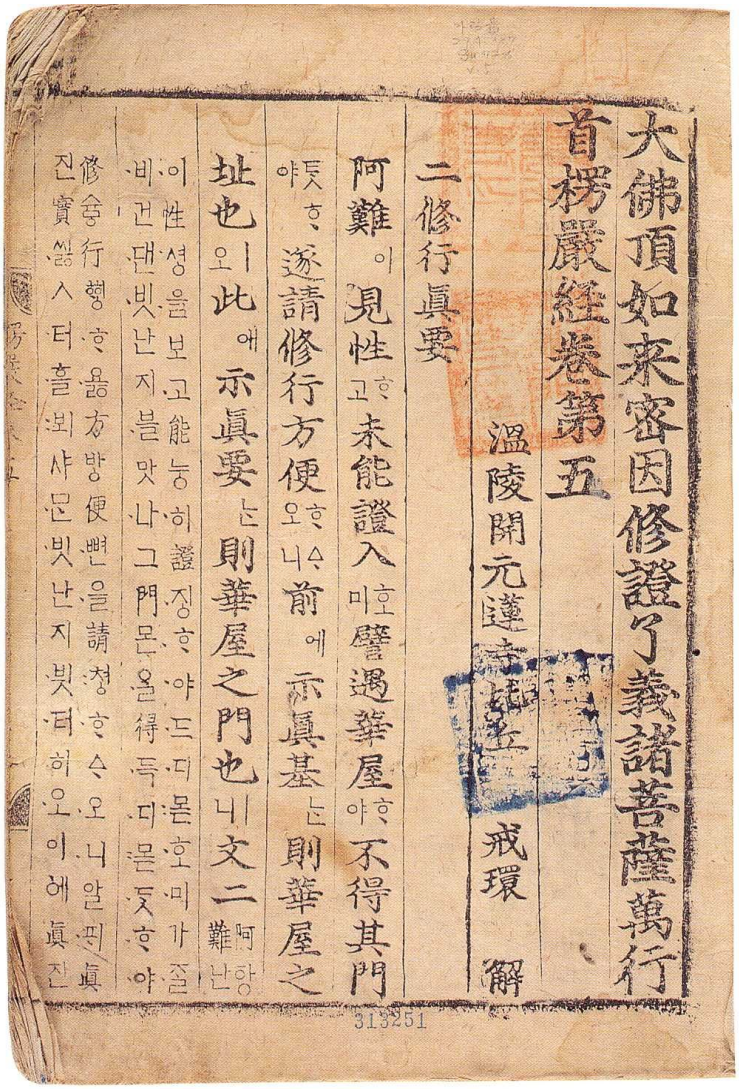


大佛頂如來密因脩證了義諸菩薩萬行首
楞嚴經卷第二

天竺沙門般剌密帝譯　烏萇國沙門弥伽釋迦譯語
菩薩戒弟子前正議大夫同中書門下平章事房融筆受
師子林沙門　惟則　會解

爾時阿難及諸大衆聞佛示誨身心泰然念
無始來失却本心妄認緣塵分別影事今日
開悟如失乳兒忽遇慈母合掌禮佛頗聞如
來顯出身心眞妄虛實現前生滅與不生滅

〈그림 8〉 을해자본 『楞嚴經』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
首楞嚴經卷第五
溫陵開元蓮寺比丘 戒環 解
二修行眞要
阿難이 見性ᄒᆞ고 未能證入ᄒᆞ미 譬遇華屋ᄒᆞ야 不得其門
ᄃᆞᆺᄒᆞ야 遂請修行方便ᄒᆞᄉᆞ오니 前에 示眞基ᄂᆞᆫ 則華屋之
址也ㅣ오 此에 示眞要ᄂᆞᆫ 則華屋之門也ㅣ니 文二 阿難 항난
이 性셩을 보고 能능히 證징ᄒᆞ야 드디 몯ᄒᆞ미 가ᄌᆞᆯ
비 건댄 빗난 지블 맛나 그 門몬을 得득디 몯ᄃᆞᆺᄒᆞ야
修슝行헹ᄒᆞ욤 方방便뼌을 請쳥ᄒᆞᄉᆞ오니 알ᄫᅵ 眞
진實씰ㅅ 터흘 뵈샤ᄆᆞᆫ 빗난 지 빗터 히오 이에 眞진

〈그림 9〉 을해자본 『楞嚴經』諺解